• 1교시 언어 영역 •

언 어 정 답

1	②	2	①	3	⑤	4	③	5	④
6	④	7	③	8	③	9	③	10	⑤
11	⑤	12	④	13	①	14	③	15	⑤
16	③	17	③	18	④	19	①	20	⑤
21	③	22	②	23	②	24	①	25	④
26	②	27	③	28	④	29	②	30	④
31	②	32	③	33	③	34	⑤	35	②
36	②	37	②	38	⑤	39	②	40	⑤
41	④	42	②	43	④	44	③	45	⑤
46	①	47	⑤	48	④	49	①	50	②
51	①	52	⑤	53	⑤	54	④	55	①
56	①	57	①	58	⑤	59	④	60	③

듣 기 / 해 설

1. 이제 여러분은 야구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림을 보며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구의 투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수가 공을 잡을 때 손가락의 위치나 공의 실밥 방향만 달리 해도 구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경기장이나 텔레비전 중계 등에서는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듣고, 나중에 경기를 관람할 때 투수가 공을 어떻게 잡고 던졌을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의상 오른손 투수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투구법에는 직구가 있습니다. 직구는 투수가 공을 잡을 때 둘째와 셋째 손가락을 모아서 실밥 방향과 직각 형태가 되도록 잡고, 찌르듯이 던지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타자들이 가장 겁낸다는 구질인 커브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커브볼은 직구를 던질 때처럼 손가락을 모아서 실밥 방향과 직각 형태가 되도록 하되 최대한 공의 오른쪽 끝부분을 잡고 던집니다. 다음은 포크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크볼은 손가락을 실밥 방향과 나란히 한 다음 둘째와 셋째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넓게 벌려서 공을 손가락 사이에 꽉 끼워서 가볍게 밀어내듯이 던집니다. 포크볼은 홈 플레이트에 다 와서야 아래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좀 치기 힘든 구질이지요. 마지막으로 스크루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루볼은 두 손가락을 모아 가지고, 공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실밥 방향과 나란히 공을 잡은 뒤 던지는 투구법이지요.

어떻습니까? 이밖에도 많은 투구법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만 알아도 야구를 좀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출제 의도] 강의에서 다루어진 세부 정보를 실제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투수가 공을 잡을 때 손가락의 위치와 실밥의 방향에 따라 투구 방법이 결정된다. 직구는 손가락을 모아서 실밥 방향과 직각 형태가 되도록 공을 쥐는 것이므로 ③의 그림에 해당한다. 커브볼은 실밥 방향은 직구와 비슷하지만 오른쪽 끝을 쥐고 던진다고 했으므로 ④의 그림에 해당한다. 포크볼은 손가락을 실밥 방향과 나란히 하되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벌려서 잡는다고 했으므로 ⑤의 그림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스크루볼은 손가락을 실밥 방향과 나란히 하면서 약간 왼쪽 부분을 잡는다고 했으므로 ①의 그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2.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한국에서 까치는 길조이고 까마귀는 흉조인데, 미국에서는 그 반대라면서요? 길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 눈에는 까치가 더 예쁘게 보여요. 미국 사람들 눈에는 그렇지 않겠죠?

여 : 그럼요. 그게 문화적 차이라는 거죠. 같은 민족끼리도 지역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민족이나 국가가 다르면 그 차이가 더 심할 수밖에 없지요.

남 : 그런데 문화가 달라도 개인적인 느낌으로 끝나고 말면 별 문제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주의를 해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모르는 사이라도 서로 마주치면 미소를 지으면서 '하이!'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라고 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그래 보세요. 영락없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 받지 않겠어요?

여 : 우리 나라에서는 손짓으로 사람을 부를 때 손바닥이 아래를 가리키게 하고 강아지를 부를 때는 손바닥이 위를 가리키게 하는데, 이것도 미국에서는 반대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순간적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강아지로 취급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 :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게 다 서로 간에 문화적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생긴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외국의 문화를 일일이 다 알아 둘 수도 없는 일이고…….

여 : 외국의 문화적 습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양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남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출제 의도] 두 사람의 발언 속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선행 조건으로서의 전제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남자의 첫 번째 대사에서 까치에 대한 선호가 우리 나라와 미국이 다르다고 한 것은 나라별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두 번째 대사에서 상황에 따라 행동에 주의를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한 것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이다. 여자의 첫 번째, 세 번째 발언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라별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

3. 이번에는 연설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젊은이라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정신적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성이라는 자산입니다. 자메이카 태생의 미국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이 대학 시절 콜라 회사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입니다. 흑인 차별이 심하던 당시 백인 친구들은 더러운 물을 일부러 엎지르곤 하면서 괴롭혔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 했고, 이를 유심히 관찰하던 관리 책임자는 그를 다음 방학 때도 불렀다고 합니다.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이런 성실성이 바탕이 되어서 훗날 파월은 국무장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성이란 자산입니다. 삶을 살면서 항상 정직한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링컨이 주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에서는 그에게 2백 달러의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199달러 25센트를 편지와 함께 당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선거 기간 중 나는 말을 타고 다녔으므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노인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느라 75센트를 지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반납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링컨의 이러한 정직성은 당원들을 감동시켰고 결국 그는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직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정직성을 바탕으로 엮어 나가는 삶은 공들여 쌓은 탑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할 때 여러분의 밝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출제 의도] 연설을 듣고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 연설에서는 젊은이가 지녀야 할 성실성과 정직성이라는 두 가지 정신적 자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사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링컨'의 예화를 활용하여 이 두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고,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재산, 공들여 쌓은 탑'과 같은 적절한 비유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⑤와 같은 평가는 잘못이다.

4. 이번에는 텔레비전 보도에 대한 비평을 듣게 됩니다. 물음과 답지까지 다 들은 후에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말 장한 어린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에 빠져 숨질 뻔한 친구들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침착하게 구해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발휘한 기지도 칭찬할 만하지만 남을 위해 힘을 모은 마음씨가 더 대견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여름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깊은 곳에 빠진 친구를 같은 학교 학생들이 손을 맞잡아 인간띠를 만들어 구해 낸 사건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보도입니다. 방송사들은 각기 '기지로 친구 살려!', '장한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친구를 구한 어린이들의 행동을 치켜세우며 앞 다투어 '어린 영웅'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물론 성인도 아닌 어린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의 목숨을 구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들이 '어린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키를 훨씬 넘는 깊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나선 어린이들의 행동은 자칫하면 함께 물에 빠져 더욱 큰 사고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어린이 3명 중 한 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는 것에서도 상황의 위험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으나, 방송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물음과 답지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이 비평의 내용으로 보아 방송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보도 태도를 가장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학생 : 편향적 시각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보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생 :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학생 : 사건 보도를 할 때는 사건이 지니고 있는 여러 측면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 학생 :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관련된 보도는 삼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학생 : 보도의 생명은 신속성에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출제 의도] 텔레비전 보도에 대한 비평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도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 비평에서 연사는 먼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어린이와 관련된 보도를 들려주고 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즉, 어린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구한 사실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어린이들의 행동이 자칫 더 큰 사고를 부를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방송은 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이 비평에서는 텔레비전 보도가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지 않고, 한가지 측면에 치우쳐 있으므로 그런 요소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다.

[5~6] 이번에는 역사 속 인물과의 가상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김옥균 선생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갑신정

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옥균 : 갑신년 사건의 의미는 그것이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역사적 사건들에 있습니다.

진행자 : 갑신정변이 초래한 사건들은 대부분 조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김옥균 : 그렇습니다. 갑신년 사건은 일본군과 청군 사이의 충돌을 불렀고, 10년 뒤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행자 : 그보다 더 가깝게는 갑신정변의 결과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통제가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지요. 그 때까지 청의 권한은 미약했지만, 갑신정변 뒤 청은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김옥균 : 그랬죠. 우리 거사가 실패한 뒤 청은 갑자기 주인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정변 주역들의 노력이 당장에는 청의 위협을 불렀고, 결국 일본에 강제 합병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좀 바꾸어 보죠. 젊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것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김옥균 : 맞습니다. 일본의 개화가 왕당파와 막부파 사이의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서야 이루어졌는데, 이를 보면서 우리는 혁명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없앨 수가 있었죠.

진행자 : 물론 선생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이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텐데 삼일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옥균 : 변화의 조건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겠죠. 전통적 사회 체제는 시대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 뿌리가 워낙 깊었고, 민중들은 그것을 바꿀 힘도 의욕도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힘을 빌려 무력 정변을 꾀한 것이죠.

진행자 : 그럼 갑신정변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옥균 :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회 변혁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백성들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다면, 현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층의 방해를 막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출제 의도] 방송 대담에서 진행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대담은 김옥균을 초청해 갑신정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대담자는 단순하게 질문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김옥균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김옥균의 생각을 좀더 정확하게 듣고자 유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② 김옥균으로부터 갑신정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있지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대담의 내용이 논의의 초점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⑤ '메이지 유신' 등의 구체적 사례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출제 의도] 대담에서 언급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대담에서는 갑신정변에 대한 김옥균의 평가, 갑신정변으로 인해 달라진 일본, 청나라와의 관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준 영향,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과 그것이 주는 교훈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젊은 지식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7. [출제 의도] 그림 자료를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연상 과정을 거쳤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식당에서 뛰어 다니는 아이에게 어른이 주의를 주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준 어른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다.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와 연관된 연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③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 사랑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장면으로 제시된 그림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연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관용적 표현의 의미도 '제 자식의 나쁜 점은 모르고 도리어 자랑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므로 자녀 교육의 중요성과는 어긋난다.

8. [출제 의도] 주어진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한 집필 방향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에는 세 가지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고급 인력 유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적절하게 활용한 진술을 찾아야 한다. 먼저 그래프 자료는 한국의 두뇌 잔류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며, 기사 자료는 실제 고급 인력이 해외로 나가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인터뷰 자료는 기술 인력들의 해외 유출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민을 담고 있다. 그런데 ③의 경우 인터뷰 자료에 제시된 내용과 반대의 상황을 담고 있으므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9. [출제 의도] 글감을 수집한 다음, 이를 글의 전개 계획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수집된 글감은 도입부에서 활용할 만한 것(ㄱ, ㄴ)과 전개부에서 활용할 만한 것(ㄷ, ㄹ, ㅁ), 결말부에서 활용할 만한 것(ㅂ : 해결 방향, ㅅ : 현안 문제)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런데 'ㄹ'을 '전개부'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와 관련된 새로운 글감의 수집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ㄹ'(민족주의관)은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끼리 결속하여 자주 독립의 사상을 낳자는 민족주의 사상이므로 '남북의 민족 통일 문제'와 같은 현안 문제 상황과 관련된 글감을 추가로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에서 '자주 국방의 문제'는 김구 선생의 '자주 독립의 민족주의관'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다.

10. [출제 의도] 일상적인 글쓰기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글을 창작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참고 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내용적 조건으로, '애교심과 결속력을 고취'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건은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비유적 표현, 고유어,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⑤는 1행에서 교정에 우뚝 솟은 소나무를 통해 내용적 조건을 고려하였고, '우리 기상'을 '소나무'에, 시련을 '바람서리'에, 함성 소리를 '천둥소리'에 각각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름드리, 바람서리, 옹골찬' 등 고유어를 구사하였으며, '으랏차차'를 반복하여 음성 상징어의 묘미도 살렸다.

[오답 풀이] ① '애교심'을 고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③ '넘버 원, 빅토리' 등 외래어 표현을 남발하여 표현의 둘째 조건을 어겼다. ④ 음성 상징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11. [출제 의도] 우리말의 어법에 맞는 문장을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은'은 '~이다'와 호응을 이루므로, '장점은'이라는 주어에 제대로 호응하려면 서술어를 '~잘 보내 준다는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⑤의 경우도 주술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이다. 이 경우에도 서술어를 '~한다는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된 영어 번역투의 문장이다.(읽혀지고 있는→읽는) ② '사과와 귤 두 개'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다.(사과와 귤 두개→사과 두 개와 귤 두 개, 혹은 사과 하나와 귤 두 개) ③ 우리말에서는 형용사에 대해 명령형 문장이나 청유형 문장을 쓸 수 없다.(건강합시다→건강하게 사십시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일반적 주어이므로 자연스럽게 생략되었다. ④ '절대로'는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하는 부사이므로, 이 문장은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문장에서도 주어는 자연스럽게 생략되었다.

12.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다듬기 위한 협의 내용 중 타당하지 못한 의견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낭독할 답사이다. 답사는 졸업식에서 행해지는 의식사(儀式辭)의 하나이므로 자연스러운 인사말로 시작하고, 이어서 선배로서 후배들에 대한 당부 및 그 동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졸업 후의 포부와 각오를 제시하는 것도 좋다. 따라서 ①, ②, ⑤는 타당한 의견이다. 또한 내용의 일관성을 지적한 ③도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것은 후배들에 대한 당부의 하나로서 적절한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④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 없다.

13. [출제 의도] 대등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 특성과 형태상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긍정과 부정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을 보면, 긍정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긍정과 부정에 관한 합성이 이루어질 때 그 어순도 '긍정+부정'이 주류를 이룬다.(폴리아나 pollyanna 가설 참조) 부정적인 경우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선택지로 제시된 '빈부(貧富), 화복(禍福), 곡직(曲直), 손익(損益)'이 그 예들이다.(그밖에도 '난이(難易), 고락(苦樂), 궁달(窮達), 애환(哀歡)' 등이 있다.) 어쨌든 <보기>의 설명처럼 '긍정(A)+부정(B)'형이든 '부정(A)+긍정(B)'형이든 어순이 고정되어 쓰인다. 그러나 ①의 '사생(死生)'은 '생사(生死)'처럼 어순이 교체되어 쓰이기도 한다.

14. [출제 의도] 구체적인 발화 장면을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단계별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문법 지식을 스스로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단계별 탐구 과정의 첫 번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르면 언어에는 발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언어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들의 여러 관계와 장면(언어 외적 요소)도 함께 관련되어 나타난다. '철수'의 발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연령, 서열 등)를 보면 '선생님>순이>철수>영희'의 순으로 나타난다. '철수'는 '선생님'에게 격식을 갖춘 아주 높임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순이'는 자신에게 비록 선배이긴 하지만, 듣는 이를 고려하여 '선배가'라고 하며 높임의 등급을 낮추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국어의 높임법은 발화와 관련된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언어 외적 요소에 더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15~20] [시가 복합]

(가)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나) 작자 미상, '우부가(愚夫歌)'
(다) 작자 미상, 사설시조

15. [출제 의도] 시를 읽고 작품 간의 내용이나 표현 상의 공통적 특징이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 작품의 화자는 모두 시적 대상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와 그를 위해 묘비명을 써 준 '어느 유명한 문인'이 비판의 대상이며, (나)에서는 온갖 타락한 행위를 일삼는 '개똥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에서는 '두터비'의 비굴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대상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그러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② 시상 전개 과정에서 화자가 바뀌고 있는 것은 (다) 뿐이다. ③ 의인화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다) 뿐이다. ④ 나열과 대구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가)와 (나) 뿐이다.

16. [출제 의도] 외적 정보로 제시된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반어적 표현 기교가 지닌 특징과 그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이처럼 훌륭한'이라 한 것은, '한 줄의 시',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지 않고, 즉 정신을 살찌우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많은 돈'과 '높은 자리'만을 좇았던 '그'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고려할 때, '이처럼 가치 없는'이라고 말해야 할 것을 뒤집어 말한 반어적 표현 기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은 과장된 표현이고, ②는 사실의 진술이며, ④의 '잿더미'는 비유적 표현, ⑤는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17. [출제 의도] 다른 작품을 내용이나 형태, 표현 등을 달리 하여 바꾸어 쓴 과정에서 생기게 된 특징과 그를 통해 얻게 된 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와 (다)를 비교해 달라진 점을 하나 하나 확인해야 한다. <보기>에서 '파리'는 '두터비'와 '약자(피해자)' : '강자(가해자)'의 관계에 있고, '송골매'와 '파리' 역시 '강자 : 약자'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대상간의 관계는 (다)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③은 잘못된 분석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시조의 정형적 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다)는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여 확장된 문장 표현을 구사함으로써 탄력적 변화를 주고 있다. ② '치달아', '풀쩍', '내닫다가' 등 두터비의 행위가 더욱 구체화되어 생생한 느낌을 준다. ④ '두엄', '내닫다가', '자빠지거고' 등 두터비의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관련된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⑤ '가슴이 금즉하여', '모쳐라 날랜 낼싀망정 어혈질 뻔하괘라' 등 두터비의 삼아 내면 심리를 드러내었다.

18. [출제 의도] 외적 정보를 준거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태도를 추리하고 이를 답지에 적용하여 비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 <보기>의 화자는 '거짓의 거리, 뭇 구호, 빈 찬양의 헛한 울림, 영혼을 팔아 예복을 입고' 등의 표현을 통해 진실하지 못한 노래가 무가치함을 역설하고 있고, 한편으로 '진실은 고독히, 뜨거운 노래를 땅에 묻는다.' 등의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내면적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 입장에서는 '그'의 행태를 찬양하는 묘비명을 쓴 '문인'에게 '가치의 기준'을 지니지 못한 채 '삶의 부조리'를 미화하는 작품을 썼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화자가 '투사'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의 '문인'에게서 '투사'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② '그'가 세속적 명예를 좇는 것은 사실이나, <보기>의 화자가 현실을 벗어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화자를 '시대의 선구자, 미래의 예언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⑤ (가)의 '문인'이 생계를 위해 이름을 판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19. [출제 의도] 시 속의 인물이 지닌 성격이나 태도를 적절한 속담을 활용하여 비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문맥상 '자기의 큰 허물은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만 나무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의 작은 잘못은 욕하면서 정작 자신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지닌 ①이 가장 적절한 비판이다.

[오답 풀이] ② 맥락도 모르고 덩달아 흉내내거나, 남의 결점을 장점인 줄 알고 본뜸을 이르는 말. ③ 그 자리에서는 불평 한 마디 못 하다가 나중에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한다는 말. ④ 윗사람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 ⑤ 약한 사람이 철없이 강한 사람에게 덤벼들 때 이르는 말.

20. [출제 의도] 시를 읽고 구체적인 시구들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함축적 의미나 이미지를 지니는지, 혹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다)에서 '두터비'는 자신의 비굴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날랜 낼싀망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비굴함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감추려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글픈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1~25] 조한욱, '역사학은 문학인가 과학인가' - 인문 제재

21. [출제 의도] 글의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역사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글쓴이는 역사학이 문학성과 과학성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역사학의 두 가지 성격'이 된다.

[오답 풀이] ① 역사 서술에서 대중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역사학의 과학성을 포함할 수 없다. ④ 역사학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견해도 인용하고 있다.

22. [출제 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때의 '세우다'는 '질서나 체계, 제도, 규율 따위가 올바르게 있게 하거나 짜여지게 하다'의 뜻으로 '서다'의 사동형이다. '확립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②에서 전통을 '세우다'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작동을 멈추게 하다 ③ 계획, 결심, 자신감 따위를 마음속에 짜다. ④ 공로나 업적 따위를 이룩하다 ⑤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게 하다.

23. [출제 의도] 일반적 진술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그러한 대중들의 관심을 채워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역사가들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②에서 '역사 관련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하여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음을 말하면서, 그 저자가 비역사학도라고 하였기 때문에 ㉡의 구체적인 사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일만 제시되었을 뿐, 그런 현상에 역사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⑤ 역사가가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24. [출제 의도] 문맥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는 모두 '역사학의 문학성과 과학성'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 말들이다. 그 중에서 ⓑ~ⓔ는 과학성과 관련된 말들인데 비해, ⓐ는 문학성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정답이다.

25.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인물들은 모두 역사학의 성격에 대해 각각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 매콜리는 문학성과 과학성을 조화시키기가 어렵다고만 했을 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그런데 ④에서는 매콜리가, 문학성을 중시하는 입장의 중요한 근거인 대중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야기체 역사 서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일반적 법칙의 확립과 정확한 서술을 강조하여 과학성을 중시한 입장을 보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역사학은 근본적으로 과학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옳다. ⑤ 감동을 강조하여 역사 서술의 대중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으므로 적절하다.

[26~30] 최완규, '허준' - 극문학(드라마 대본) 제재

26. [출제 의도] 극문학 작품의 대본을 영상화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뒷 부분에서 마을 사람들의 배은망덕한 태도에 화가 난 우공보는 끝까지 남으려는 허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난다. 이런 장면에서 슬픈 느낌을 주는 처연한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이 가난한 시골 마을이므로 적절하다. ③ 허준이 헐벗고 굶주린 병자들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 마음을 시청자가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견이다. ④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조선 시대에는 시대적 의원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신분 차이가 의복으로 드러났으므로 적절하다. ⑤ 허준과 우공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견으로서 적절하다.

27. [출제 의도] 작품을 읽고 쓴 독서 감상 일기의 내용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묵는 문제이다.

허준이 가난의 설움을 겪었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허준은 과거 시험 준비하려고 작정했던 시간을 희생해서 병자들을 진료하려고 남는 것이지 과거 시험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28. [출제 의도] 작품 속에 드러난 다양한 갈등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허준의 내면적 갈등, 허준과 우공보의 갈등, 우공보와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병자들 사이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촌로가 떠나려는 허준 일행을 두둔하는 대목이 나오지만 이 글에서는 촌로가 병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⑤는 우공보의 내적 갈등에 해당한다. 허생과 정이 들었던 우공보는 허생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때까지 함께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한양의 과거장에 여유 있게 도착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허준을 설득해서 함께 떠나려다가 허준이 더 남겠다고 하자 갈등하던 끝에 결국 혼자 떠나게 된 것이다. 이는 떠나기 직전의 우공보의 대사로 미루어 알 수 있다.

29. [출제 의도] 작품 속의 인물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택한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공보는 허준에게 한양에 가서 여유 있게 준비하고 나서 과거 시험을 보려면 지금 떠나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우공보는 '평생을 기다려 온 과거'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환기시키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우공보는 의원으로서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명분보다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실리를 내세우고 있다.

30. [출제 의도]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는 표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허준을 데리고 떠나려던 우공보가 이를 비난하는 '사내1'에게 '뭐야?'라고 말하자 '사내2'가 화가 나서 한 마디 거드는 상황이다. 따라서 '화를 내면서', '시비조로' 등이 어울린다.

[31~34] 조한혜정, '여성성과 남성성' - 사회 제재

31.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셋째, 넷째 문단을 보면, 여성성의 모순이 해결되면서 남자들은 남성성의 위기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남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무리한 방식으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했다.

[오답 풀이] ① 둘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③ 첫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④ 다섯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⑤ 넷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32. [출제 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두 가지 사례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고정관념에 불과하며, 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답은 ③이다.

[오답 풀이] ②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제시하게 될 내용이므로, 도입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⑤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33. [출제 의도] 글을 읽고 보인 독자의 반응이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소통과 보살핌의 원리를 강조하는 여성성의 가치를 강조하였지만, 폭력적인 남성조차 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폭력과 같은 근대적 남성성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② 근대적 남성성의 긍정적 측면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판적 반응은 적절하다. ④ 글쓴이는 평등 의식을 강조하였다. ⑤ 글쓴이는 근대적 남성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며, 여성성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이것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통계적인 차이'와 '절대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은 바로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즉,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대로 길러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다고 한 <보기>의 사례도 그 원인을 ⑤와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조장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④ '여성 공천 할당제'는 이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해당한다.

[35-39] 오상원, '모반(謀反)' - 현대 소설

35. [출제 의도] 주어진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개관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작품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 이 소설의 주인공은 '청년', 곧 '민'이라는 청년으로 보이는데, 그를 가리키는 인칭이 시종 3인칭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청년'이나 '민' 모두 3인칭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민'이라는 주인공의 이름 대신 작품 앞 부분에서 '청년'으로 부른 것이나, 반동 인물에 해당하는 인물을 '세모진 얼굴'로 지칭한 것은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는 비밀결사 조직의 생리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인물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비밀결사 활동의 은밀한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③ [A]의 (5)에서 '무의미한 정쟁의 반복에 회의하던 '민(청년)'은 심한 자괴감에 빠진다.'는 내용에 착안하면 된다. ④ [A]의 (4)와 (5)에 소개된 사건(비밀결사 조직 가입, 암살 지령과 수행, '어머니'의 죽음 등)은 시간적으로 (1)~(3)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난 사건이다.

36. [출제 의도] 특정 소설을 이미 감상한 독자의 배경 지식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추정하는 형태의 문제이다.

지문에 제시된 작품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뉴스를 접한 순간 그 소설 작품의 어떤 내용이 떠올랐다는 것은 양자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전제에 따라 인물, 사건, 배경 등의 측면에서 소설 내용과 <보기>의 뉴스를 대비하여 보면, 소설 속의 '소녀'와 뉴스 속의 '누나'가 처해 있는 불우한 처지가 공통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 한 학생'이 <보기>의 뉴스에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누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소설 속의 '소녀'의 모습이 떠오르게 된 것이다.

37. [출제 의도] 소설의 내용을 제재로 하여 새롭게 설정된 상황에 맞게 변용할 줄 아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작품 속에 드러난 소녀의 가난하고 나약한 모습에서 그가 '물심 양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이며,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그녀가 오빠의 무죄를 입증했다는 근거를 추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민'이 '오빠는 곧 돌아올 거요. 안심하고 어머님 잘 돌보고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오빠'의 석방이 '소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사건의 골격을 유지'하라는 조건과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보기>의 두 번째 조건을, 지문 후반에 나타나는 '민'의 양심적 행동과 결부시키면 충분히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개인을 조직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할 뿐 개인의 비인간적 삶을 강요하는 '비밀결사' 조직의 모습은 곧 부당한 사회적 폭력을 상징한다.

38. [출제 의도] 소설 제목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 (가)를 통해 작품의 제목인 '모반'의 의미가 한 마디로 '배반'임을 파악한 다음, 이를 소설의 사건 전개 과정에 적용시켜 본다.

이 소설에서의 배반은 우선 개인의 삶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조직의 논리만을 앞세우는 비정한 조직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주인공 '민'의 태도에서 발견된다. 또한 [A] 부분에서의 '조직을 배반하는 자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비밀결사(4)', '무의미한 정쟁의 반복(5)'이라는 말에서 'ㄷ'을 추리할 수 있다.

39. [출제 의도] 인물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발화 의도 및 태도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B]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대립적인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있을 뿐,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 어디에서도 생각이나 입장이 접근되어 가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B]의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갈등이 정점을 행해 치닫고 있다.

[40~43] 김혜숙, 광고의 언어적 표현과 영향 - 언어 제재

40. [출제 의도] 글쓴이가 집필 당시 구상한 계획이 표현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 또는 변경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문단별 내용과 표현 전략의 특징을 묻는 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이다.)

이 글은 광고 언어의 개념을 규정한 다음, 광고 언어에서 표현하는 여러 방법들과 그 효과를 연관지어 설명한 글이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전달력이 풍부하고 호소력이 강한 광고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수신자(소비자)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반응을 고려하여 치밀한 표현 전략을 사용해야만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정확한 정보와 진실된 의도의 전달이 중요함을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다.

41. [출제 의도] 제시문에서 언급한 광고 언어의 표현 방법과 효과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생략'은 강조를 위한 방법으로서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시각 언어)의 표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생략을 하더라도 회사의 상징인 로고 이미지를 생략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한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로고 이미지는 제품을 만든 회사의 정보뿐 아니라 좋은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해주는 핵심 정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꿈, 희망, 행복을 전해드리는 [로고 이미지 삽입] ○○ 전자'와 같은 제안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원 A가 제안한 의견은 광고 언어가 지녀야 할 신조어의 조건에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외래어이긴 하지만 언중들의 언어 체계 안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단어들로 제품명을 제안하고 있다. ② '(귀로만 전해지던 사랑을) 이젠 표정으로 느낀다.'에서 ( )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생략을 하면서도 화상 전화기의 특징적인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 ③ 시각 이미지와 언어적 표현을 결합시키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넓은 액정 화면, 통화 고감도'도 생략의 기법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2. [출제 의도] 능동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구절의 의미를 달리 표현해 보거나, 빠져 있는 의미를 보충해서 이해하는 읽기 태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출제된 문제이다.

송신자는 수신자가 으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수신자 스스로 그 의미를 복원해 내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광고는 송신자와 의미를 복원하려는 수신자와의 쌍방향적인 의사 소통을 이상적 목표로 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신자가 소비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위치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생략된 의미 복원 행위는 수신자가 소극적인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수신자가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풀이] 생략은 본질적으로 생략되기 이전의 형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⑤와 같은 전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출제 의도] 순수 고유어 어휘와 한자 어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에서 '(의미상의 모호성을) 부르다'는 것은 '유발(誘發)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에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의 '도달(到達)'이, ②는 '짜서 이루거나 얽어서 만듦'의 '조직(組織)'이, ③은 '양이나 수치가 줆'의 '감소(減少)'가, ⑤는 '생각하고 헤아려 봄'의 '고려(考慮)'가 적절하다.

[44~47] 이춘길, '두뇌의 진화' - 과학 제재

44. [출제 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넷째 문단에 따르면,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① : 여섯째 문단, ② : 첫째 문단, ④ : 셋째 문단, ⑤ : 둘째 문단)

45. [출제 의도] 제시문의 개념을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만득이의 형체 역시 보초병에게 '감각'(인식)될 수 있는 자극이며, 만득이의 목소리 역시 만득이가 '이 사람은 적군이다.'에 가까운 '처리'(판단)를 이끌어 내기 전 보초병에 의해 '감각'된 자극이다. 감각의 대상이 되는 환경상의 변화를 생물학에서는 자극이라고 하며, 이 의미를 문맥에 의해서 파악해

낼 수 있다.

46. [출제 의도] 앞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의 내용을 활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을 묻는 문제이다.

두 문장은 모두 하등 동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앞 문장은 모든 동물의 신경 체계가 동일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뒤 문장은 각각의 동물은 세포가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신경 체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재료를 써서 다양한 결과물이 생겨나는 현상을 비유적 표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47. [출제 의도]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 의미하는 세포 집단은 '딜레마'의 상황에서 유연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하며, 두뇌처럼 일종의 지능을 갖추고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비행장의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다.

[48~52] 작자 미상, '숙향전(淑香傳)' - 고전소설

48. [출제 의도] 고전 소설이 어떤 서술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작품에서 직접 확인해 보게 하려는 문제이다.

제시된 부분은 주로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내막을 파악할 수 있다. 도사가 천자에게 하는 말을 통해 초공이 길을 떠나는 이유와 장소가 밝혀지고, 초공의 말을 통해 김전, 숙향과 초공의 관계가 드러난다. 용왕의 대화를 통해서 초공이 용왕에게 오게 된 내막과 개안주라는 진주를 소지하게 된 사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49.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한자 숙어를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초공이 부모와 아내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선약을 구하러 길을 떠나는 장면에서 '풍수지탄(風樹之嘆)'의 심정을 추리할 수는 없다. 풍수지탄이란 어버이가 돌아가셔서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③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④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일어남. ⑤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임.

50.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소재가 산건 전개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추리해 보게 하는 문제이다.

공은 선약을 구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바다 짐승의 제지를 받고 아내가 준 옥지환을 빼앗긴다. 옥지환은 당초 동해 용왕이 가지고 있던 개안주였기 때문에 짐승으로부터 이 진주가 훔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아내의 옥지환을 소지해서 생긴 오해이지 아내를 위해서 쓴 누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옥지환을 얻게 된 내력이 김전의 선행에 있었고, 그 결과 김전의 딸 숙향의 남편이 임금께 공을 세울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알 수 있다. ③ 옥지환을 한짝을 주며 이걸로 자신의 안위를 짐작하라는 아내의 말로 확인된다. ④ 황태후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동해 용왕의 개안주가 초공이 지닌 옥지환과 동일한 것임이 용왕의 말을 통해서 밝혀진다. ⑤ 사연이 있는 옥지환이기에 용왕은 이것을 소지한 초공을 귀인으로 맞이하였다.

51. [출제 의도]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을 다른 말하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은 보배를 내놓지 않으면 배를 엎겠다는 의미이다. 곧 상대를 위협하여 요구를 관철하려는 말하기 방식인 것이다. ① 역시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거북을 위협하여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는 호소와 애원, ③과 ④는 탄식, ⑤는 기원의 의도를 내포한 말하기 방식에 해당한다.

52. [출제 의도] 이어질 내용을 가상하여 제시하고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평가해 보도록 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새롭게 등장한 용왕의 아들은 초공을 도와 선약을 구해올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용왕의 아들이 현재의 상황에서나 앞으로 이어질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캐릭터를 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3~56] 임두빈, '서양에서 풍경화의 출현이 동양에 비해 늦은 이유 - 예술

53. [출제 의도] 글쓴이가 사용하고 있는 논지 전개상의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된 지문은 동양에서 산수화가 나타난 시기보다 서양에서 풍경화가 나타난 시기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동·서양의 사유 체계가 지닌 본질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동양의 합일적 자연관과 서양의 대립적 자연관을 대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서양에서 풍경화가 늦어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논지 전개 방식은 '대상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바탕으로 현상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가 적절하다.

54. [출제 의도] 지문 분석을 통해 주요 정보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 진술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두 개의 그림 자료 중 ㉮는 동양적 산수화 작품이고 ㉯는 서양적 풍경화인데, 답지에서 이에 대한 감상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이 지문에 제시된 정보와 일치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해결해야 한다. ④에는 ㉮ 그림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는데, 이는 지문에 제시된 동양적 자연관이나 산수화의 특징과 어긋나는 진술로 볼 수 있다. 지문에서는 동양의 산수화에 나타난 자연에 대해 '교감을 나누는 합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지문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이다. ② 지문에 제시된 동양 산수화의 특성과 일치하는 진술이다. ③ 지문에 제시된 서양 풍경화의 특성과 일치하는 진술이다. ⑤ 서양 풍경화에 나타나는 시점의 특성에 관한 진술이다.

55. [출제 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례에 적용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은 동양적 자연관의 특징과 관련된 진술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친화적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간과 소통하는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①에 제시된 시조 작품에 이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자연을 매우 사랑하여, 마치 그리운 연인이 찾아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⑤ 화자를 둘러싼 외적 상황으로 자연을 제시하고 있다. ③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으로 자연을 제시하고 있다. ④ 화자와 구별되는 대상으로 자연을 제시하고 있다.

56. [출제 의도]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단어들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는 '따로따로의 것을 한 데 모아 합한'의 의미로 사용되며, ⓑ는 '사물을 그 구성 요소에 의거하여 자세히 포착하는'의 의미로 사용된다. 두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는 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①에 제시된 '내면적'은 '내부에 관한'의 의미로 사용되며, '심층적'은 '깊은 속에 관한'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와 ⓑ의 의미 관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7~60] 이필렬, 21세기 에너지 대안 - 기술 제재

57. [출제 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3문단에서는 일부의 견해와 달리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적지 않음을 태양 전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2문단에서 ③ 3문단에서 ④ 2문단에서 ⑤ 4문단에서

58. [출제 의도]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환경 문제가 에너지 사용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첫 문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수립하지 않고서는(마지막 문단), 새로운 에너지를 도입하더라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빈 칸에는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사용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인식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59. [출제 의도] 문맥적 상황을 고려하여 어휘의 의미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발굴(發掘)'의 여러 뜻 중에서 이 글의 문맥에 맞는 단어를 찾으려면 가려져 있는 것을 찾아 낸다고 하여야 한다. 전통이나 인재와 같이 땅 속에 묻힌 것 같이 가려진 것을 찾아 낼 때 '발굴'한다고 한다.

[오답 풀이] ① 일반적으로 '색출(索出)'은 샅샅이 뒤져서 찾아낼 경우에 쓰는데, 범죄인을 색출하거나 적군을 수색하여 색출한다는 경우에 사용한다. ②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는 의미에서 '발견'을 쓸 수는 있으나, 추론 과정에서 적용한 '발견'의 의미는 이 글의 문맥에 적용할 수 없다. 에너지원은 사실이나 현상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이다. ③ 모색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때 사용된다.

60. [출제 의도] 서술상의 방식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미국과 개발도상국 주민의 오염 사례, 미국과 인도의 오염 에너지 사용 사례 등 여러 사례를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